

# “팀은 최고 성적·프런트 수장들은 모두 사표” 광주FC 최대 위기

## 창단 10년 만 1부리그 파이널A 진출 등 최고 성적 대표·단장·감독 없어 2021시즌 동계 훈련 차질

프로축구 광주FC가 창단 10년만에 1부리그 파이널A까지 진출하는 등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지만 구단 사무국은 대표부터 단장, 감독까지 모두 공석이 되면서 최대 위기에 빠졌다. 당장 외국인 선수 영입과 2021시즌을 대비한 동계훈련 등을 준비해야 하지만 수장이 없어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광주FC에 따르면 7년여동안 구단 운영을 책임졌던 정원주 대표이사가 지난 8일 광주시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구단은 단장에 이어 감독이

직, 대표까지 공석이 됐다. 현재 광주FC 단장은 광주시 문화관광체육 실장이 겸직 하고 있다. 기영욱 전 단장이 지난해 12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물러나면서 광주시 간부급 인사가 1년여동안 대행하고 있지만 시정 업무와 겸직을 하고 있어 축구단에 집중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광주FC를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이끌었던 박진섭 감독은 최근 서울FC로 옮겼다. 박 감독은 지난 2017년 12월 광주FC 감독으로 영입돼 당시 2부리그에

있던 팀을 2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었고 올시즌 1부리그 승격 이후 6승 7무 승점 25점의 성적으로 6개팀이 진출하는 파이널A 무대를 밟았다. 지난 2010년 창단 이후 광주FC 1부리그 최고의 성적이다. 여기에 지난 2013년 6월 광주FC 대표이사 부임이후 7년여동안 광주FC를 이끌었던 정원주 대표가 지난 8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상 초유의 수장자리 공석 사태에 직면했다. 광주FC는 당장 펠리페, 윌리안, 아술마토프 등 3명의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 논의를 해야한다. 현재 펠리페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 남았지만 윌리안은 타구단 이적이 확정됐다. 아술마토프는 연봉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시즌 주축 선수들과는 계약이 완료됐지만 일부 선수들이 이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감독선임이 늦어지면서 광주FC는 내년 시즌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광주F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해외 전지훈련을 취소하고 오는 21일부터 국내 훈련에 돌입한다. 21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광주에서 1차 훈련을 한 뒤 1월11일~29일 남해(2차), 2월1일~10일 여수(3차), 2월15일~26일(광주) 일정으로 동계훈련을 펼칠 계획이다. 훈련은 감독의 권한으로 선임이 늦어지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광주FC는 신임감독과 외국인 선수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 신임감독은 3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으며 외국인 선수는 후보들의 영상을 받아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FC 관계자는 “감독 선임은 구단 프런트의 역할이며 훈련은 감독이 색깔에 맞춰 이끌어가는 하지만 수장들이 모두 없어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선수들도 구단 내부 사정을 알고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광주FC 내홍이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구단주와 광주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서선욱기자

## KIA, 터커와 총액 105만달러에 재계약

### “올해보다 좋은 팀 성적 올리는데 밀거름 되겠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올 시즌 뛰어난 활약을 펼친 외국인 타자 프레스턴 터커(30)와 내년 시즌에도 함께 한다. KIA는 9일 터커와 연봉 70만달러, 계약금 35만달러 등 총액 105만달러에 재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보장 액수 85만달러(계약금 30만달러·연봉 55만달러)에서 20만달러 오른 금액이다. 2019시즌 중 대체 외인으로 KIA 유니폼을 입은 터커는 올 시즌 정규리그 142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6 32홈런 113타점 100득점을 기록, 구단 최초로 30홈런-100타점-100득점을 작성

했다. 터커는 “다음 시즌에도 KIA 유니폼을 입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한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세심한 배려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준 구단에 감사하다”며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기장에 오지 못했지만, 항상 열정적으로 응원해 준 팬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에 머물고 있는 터커는 “체력 관리와 1루 수비 훈련 등을 계속하고 있다. 내년에는 선수들과 더욱 힘을 모아 올해보다 좋은 팀 성적을 올리는데 밀거름이 되



했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미희기자

## 손흥민, 토트넘 ‘11월의 골’ 선정...3개월 연속 수상

### 맨시티전 전반 5분 선제 결승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손세이셔널’ 손흥민(28)이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전 득점으로 구단 11월의 골에 선정됐다. 토트넘은 9일(한국시간) 구단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손흥민의 맨시티전 득점이 11월의 골에 선정됐다”라고 발표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22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치른 맨시티와의 2020~2021시즌 EPL 9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5분 선제 결승골을 터뜨려 토트넘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은 팀 동료 탕기 우뎀벨레가 찢러준 패스를 빠른 스피드로 파고들

어 맨시티 골망을 흔들었다. 펠트르 카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를 상대로 터트린 통산 6호골이기도 하다. 당시 손흥민은 축구대표팀의 오스트리아 원정에 참여했다가 토트넘 구단이 보낸 전세기를 타고 복귀해 맨시티전 결승골을 터뜨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손흥민은 가레스 베일의 브라이튼전 결승골, 해리 케인의 웨스트브롬전 결승골, 카를로스 비니시우스의 루도고레츠전 선제골, 해리 윙크스의 루도고레츠전 중거리골, 지오바니 로셀소의 맨시티전 골 등 경쟁한 후보들을 제쳤다. 또 이번 수상으로 지난 9월 사우샘프턴전 선제골, 10월 번리전 결승골에



이어 11월 맨시티전 득점까지 3개월 연속 이달의 골을 독식했다. 최근 아스널과의 복원된 더비에서 환상골을 터트린 손흥민은 토트넘 12월의 골 수상도 유력하다. 한편 손흥민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10골로 도미니 칼버트-르윈(애버턴·11골)에 이어 득점 2위에 올라 있다. 뉴스

## 양의지 “욕먹을 각오...깨끗한 선수협 만들겠다”

### “선배들이 힘들게 만든 선수협 잘 지켜야”

양의지(33·NC 다이노스)는 잊을 수 없는 2020년을 보냈다. 시즌을 앞두고 주장 완장을 찬 그는 라커룸 리더 역할을 맡아 선수단을 이끌었다. 그라운드에서는 안방마님이자 중심 타자로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달콤한 결실도 얻었다. 포수 최초 30홈런-100타점 진기록을 쓰며 팀의 창단 첫 통합 우승을 견인했다. 2016년 두산 베어스 소속으로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던 양의지는 이번엔 NC 유니폼을 입고 다시 한번 MVP에 올랐다. 양의지는 기분 좋은 기억을 떠올리며 “첫 번째 MVP도, 두 번째 MVP도 다 좋더라”며 웃음 지었다.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양의지는 이제 선수들을 대표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인 그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7일 이사회를 열어 양의지를 11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선수협 회장은 선수들을 대표하는 자리지만, 그만큼 갖은 일도 많이 맡아야 한다. 이 때문에 회장직을 꺼리는 선수들도 많다. 2017년 4월 이호준 전 회장이 물러난 뒤에는 2년 동안 회장 자리가 비어있기도 했다. 이대호 전 회장도 2021년 3월까지인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양의지는 8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장만 맡아도 부담인데 선수협 회장은 어떻겠냐”라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면서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기분 좋게 하면 된다”며 미소 지었다. “스포츠는 깨끗하고, 공정해야 하지 않나. 선수협도 마찬가지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수협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에 중책을 떠맡았다. 선수협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태현 사무총장이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임했고, 이대호 전 회장은 기존 2400만원에서 두 배 이상 오른 6000만원의 판공비를 받은 것이 알려져 비난받았다. 선수협 신뢰 회복부터 규정 손질까지, ‘신임 회장’ 양의지가 나서야 할 일이 많다. 양의지는 “선수협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좋아진 부분도 있다. 안 좋은 사건으로 이렇게 됐지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바꿔 나가면 된다”며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한다. 새로운 총장과 함께 선수협 내용을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수들이 함께 선수협의 ‘힘’을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를 위해 앞장서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 양의지는 선수협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에 대해 “선수들이 하기 나름인 것 같다. ‘힘이 없다’고 무책임하게 말하고 싶진 않다”고 강조했다. “선수들이 스스로 선수협을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배들께서 힘들게 고생해서 만들어주신 것이다.



양의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뉴시스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잘 지켜야 한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도 잘해나가야 한다”고 다부지게 말했다. 선수협 회장 자리에 대해서도 “선수들이 뽑아준 자리다. 책임감 가지고 해야 한다. 못하면 욕먹고, 잘하면 칭찬을 받을 거다. 각오하고 있다”며 담담하게 말했다. 성큼 다가온 내년은 어느 때보다 바쁜 전망이다. 선수협 회장이라는 새로운 타이틀도 달았지만, 소속팀 NC의 ‘정상 사수’를 위해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위를 보고 가던 NC는 이제 정상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이전과는 또 다른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양의지는 “또 도전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내년은 창단 10주년을 맞는 만큼 지키는 것보다 다시 도전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뉴스

## 2년 7개월만 ‘메호대전’

### 호날두, 메시에 ‘완승’

### ‘호날두 멀티골’ 유벤투스 바르셀로나 3-0 완파



유벤투스(이탈리아)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오른쪽)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 누 경기장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경기에서 앞서 약속하고 있다. 호날두는 2개의 PK에 성공해 유벤투스의 3-0 승리를 이끌며 리오넬 메시에 완승했다. 2년7개월 만에 성사된 ‘메호대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에 완승을 거뒀다. 호날두는 9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 누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스페인)와의 2020~2021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6차전에서 선발로 나와 페널티킥으로 멀티골을 터뜨리며 유벤투스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반면 오랜만에 라이벌과 만난 메시는 무득점으로 침묵했다. 호날두와 메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관중 입장이 막힌 경기장에서 킥오프 전 잠시 포옹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10년 가까이 세계 축구계를 양분해 온 두 선수는 지난 2018년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를 떠나 유벤투스(이탈리아)로 이적하면서 라이벌전이 끊겼다. 이번 시즌 유벤투스와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한 조에 묶여 맞대결이 성사됐으나, 지난 10월29일 조별리그 2차전에선 호날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대결이 무산된 바 있다. 메호대전에서 빛난 건 호날두였다. 그는 전반 12분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차 넣으며 균형을 냈다. 이어 후반 17분엔 상대 수비수 클레망 랑글레의 핸드볼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또 한 번 성공했다. 유벤투스는 전반 20분 웨스턴 매케니의 두 번째 골을 합쳐 3-0으로 바르셀로나를 격파했다. 호날두가 멀티골로 필필 날았지만, 메시는 7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하고도 유벤투스의 베데랑 골키퍼 잔루이지 부폰의 선방에 막혀 고개를 숙였다. 두 선수는 이번 경기까지 총 36차례 맞대결을 펼쳤고, 상대 전적에선 메시가 16승으로 호날두(11승)에게 앞서 있다. 한편 지난 2차전 맞대결에서 0-2로 졌던 유벤투스는 이날 승리로 설욕에 성공했다. 유벤투스는 승점 15점(5승 1패)으로 바르셀로나와 동률을 이뤘으나 상대 전적 골득실에서 앞서며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바르셀로나는 2위다. 뉴스

## 호주오픈 우승 케닌, 여자프로테니스 올해의 선수 선정

### 올해의 선수 선정



2020 호주오픈 여자 단식 우승자인 소피아 케닌(15위·미국)이 2일(현지시간) 멜버른 아라 강가에서 우승컵을 들고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케닌은 전날 열린 결승전에서 가르베니 무구루사(32위·스페인)에 세트스코어 2-1(4-6 6-2 6-2)로 역전승을 거두며 생애 첫 호주오픈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올해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우승을 차지한 소피아 케닌(22·미국)이 2020 여자프로테니스(WTA)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WTA는 9일(한국시간) 전 세계 언론 매체들의 투표 결과 케닌이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고 밝혔다. 케닌은 올해 첫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에서 여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10월로 연기돼 개최된 프랑스오픈에서는 준우승했다. US오픈에서도 16강까지 진출했다. 올해 월드컵이 취소된 가운데 나머지 3개 메이저대회에서 모두 16강 이상의 성적을 낸 것은 케닌과 페트라 크비토바(30·체코·8위) 뿐이다. 올해 WTA 투어 대회에서도 한 차례 우승한 케닌은 세계랭킹 4위로 시즌을 마쳤다. 뉴스